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양인혜*, 전진호**

*부산연지초등학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Cognition and Experience about Sexual Harass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Hye Yang*, Jin Ho Chun**

**Busan Yeonji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Sexual abuse especially in younger group have been grow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th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early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damage from sexual harass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 Questionnaire survey on cognitions and experiences about sexual harassment was done on 3125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seven elementary schools in Busan area from January to March, 2002. Data analysis was done with SPSS (ver 10.0).

Results : Though 82% of the students have ever heard about sexual harassment previously, but self assessment of 'well-known' was only 5%. About 40% of them have ever experienced audio-visual sexual materials mainly through PC (18%), media (14%), etc. And, 60% of them have ever educated about sexual harassment. In cognitions, they agreed 'unwanted touch', 'intentional showing his (her) own body', 'send lewd mails and pictures', but disagreed 'ask massage from aged', 'gaudy joke' as one of sexual harassment. In attitudes, 'no response', 'defense with friends and family', 'express unpleasantness apparently' were desirable pattern, instead, 'his (her) own responsibility', 'problem only between person concerned', 'neglect is the best way' were undesirable. About 24% of them have ever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he fifteen types of sexual harassment with major types of lewd mails · pictures (11%), hugging (5%), ask massage (4.7%) and unwanted touch (3.3%). The experience by gender was higher in girls (25.0%) than boys (22.4%)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ean level of cognition and attitude out of one hundred was 70.3 ± 28.1 and 73.5 ± 15.9 , respectively. The mean frequency of experience was 0.4 ± 1.1 times. The level of cognition and attitude was higher in girls, 6th graders, and in ever educated group ($p < 0.001$).

Conclusions : The cognition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sexual harassment assessed considerable. And, they also experienced several types of sexual harassment, though not too much. Therefore, compatible education program let them ab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sexual harassment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even in early school age.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 Sexual harassment, Cognition, Experience, Early educatio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영양상태의 개선, 개방화된 문화양식, 대중 정보매체 등의 영향으로 성적 조속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성 태도의 전환기가 청소년기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지연령화 되고 있다(양순옥, 1999). 또한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거의 무한 양의 성 정보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미처 바른 성 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호기심에 의한 성 폭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교육연구회, 1997). 이러한 문제점은 97년 1년 간 총 2295건의 성피해상담 건수에서 피해자 구성이 유아 8.9%, 어린이 16.6%, 청소년 23%, 성인 50.3%, 미상 1.2% 등으로 전체의 48.5%가 미성년자라고 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와,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 발생율이 세계 3위, 이 중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한 여성개발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최영애, 1998).

초등학생의 성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절박한 일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초기 성교육과 성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양순옥과 정금희, 1998). 즉 성교육은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의 성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행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은 학교가 되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신영란, 1987).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강간, 강제 추행 등을 제외한 가벼운 정도의 성적 행위'를 말한다(이원희, 1999). 성폭력이 원하지 않는 입맞춤, 포옹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이나 강간 등의 보다 심각한 행위를 가리키는 데에 반해(윤가현, 1998), 성희롱은 시선이나 언어, 가벼운 접촉 등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임동진, 2000).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구체적으로 사회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93년 10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의해서이다(김양희, 1995). 1993년 한국여성 민우회의 성희롱 실태에 관한 조사(한국여성민우회, 1993)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87%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공미혜, 1993).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희롱이 무엇인지, 명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성희롱의 개념이나, 선행조건과 결과, 상황적 변수들, 희생자와 가해자의 특성, 성희롱에 대한 전형적 반응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양희, 1995).

우리나라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신혜숙(1996)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연구 외에는 성희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들 연구에서 성희롱을 당한 후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은 집중력의 저하, 불안정, 성적 저하 등이었으며, 이후 그 여학생이 비슷한 불쾌한 행동에 직면했을 때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Bryant A, 1993).

이와 같이 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연구는 극히 미진하다. 또한 초등학생 시기의 교육은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개체의 행동과 생활양식, 건강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하다(최명이, 1996). 이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의 교육 요구와 현 실정에 맞는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의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의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를 파악하여 지연령화 되고 있는 성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초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과 성희롱에 대한 태도로 파악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성희롱 경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파악된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를 대상자의

특성별로 비교하여 성희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넷째, 교육 여부에 따른 인식수준을 비교하여 교육의 효과를 평가한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및 기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관할 교육청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나눈 다음, 상위군 3개, 중위군 2개, 하위군 2개 학교의 총 7개 학교를 선정하고 대상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간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 설문지로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성 문제를 다룬 문헌들에서 이 연구와 관련되는 개념을 추출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박순진, 1993; 권혜원, 2000; 정의남과 박신애, 2000; 허점돌, 2000; 염영희 등, 2001).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 행태와 관련된 특성 12문항,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10문항, 성희롱에 대한 태도 13문항, 유형별 성희롱 경험 15문항 등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식과 태도 문항은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여 바른 답을 1점, 바르지 않은 답을 0점으로 처리한 후 합산하여 총 평점으로 나타내었으며, 경험은 '있다', '없다'로 답하게 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과 태도는 관련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나누어 관찰하였다. 본 조사를 시행하기 전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지 완성에는 대략 20~25분이 소요되었다.

1)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

(1)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총 10문항으로 옳은 진술문과 틀린 진술문을 섞어 놓아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바르게 답한 경우를 1점, 바르지 않게 답한 경우를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총 평점이 높을수록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82$ 였다.

(2) 성희롱에 대한 태도

총 13문항으로 성희롱에 대한 자기방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섞어 놓아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바람직한 경우를 1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아니오'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역산처리 하였다. 총 평점이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자기방어 태도가 바람직한 것을 의미한다. 태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5972$ 였다.

2) 성희롱 경험

일상생활에서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행위들을 초등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였는가를 질문하였다. 학생들이 학교, 가정, 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15가지의 성희롱 관련 경험을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개념으로 분류하여 나열하였으며, 각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경험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145$ 였다.

3. 연구 방법

먼저 각 학교의 양호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들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학생 자신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답하게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3202부 중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인식이나 경험 문항을 모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77례를 제외하고 총 3125부(5학년 남학생 812명, 5학년 여학생 671명, 6학년 남학생 851명, 6학년 여학생 791명)를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 표본 응답율 97.6%).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특성 분포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 경험 각 문항의 응답 분포를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인식과 태도의 평점 수준을 평균, 표준편차, 범위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별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 교육 여부에 따른 인식 수준을 t-test와 ANOVA 및 Scheffé's test, χ^2 -test로 비교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No.	%
성별	남	1663	53.2
	여	1462	46.8
학년	5학년	1483	47.5
	6학년	1642	52.5
사회경제적수준	상	1335	42.7
	중	966	30.9
	하	824	26.4
거주형태	아파트(우리집)	1427	45.7
	주택(우리집)	734	23.5
	아파트(전세,월세)	225	7.2
	주택(전세,월세)	739	23.6
가정내인터넷 설치여부	있다	2690	86.1
	없다	435	13.9
부모관계	두분사이가 좋다	2783	89.1
	두분 사이가 나쁘다	224	7.1
	이혼	53	1.7
	두분중 한분이 안계심	65	2.1
형제유무	있다	2847	91.1
	없다	278	8.9
왕따경험	있다	558	17.9
	없다	2567	82.1
가족중 대화상대	엄마	1854	59.3
	아빠	247	7.9
	손위형제	538	17.2
	손아래형제	486	15.6
방과후 어머니 유무	늘 계심	455	14.5
	어쩌다 한번씩 안계심	1546	49.5
	거의 매일 안계심	1124	36.0
어머니 부재에 대한 느낌	이해할수 있다	2178	69.7
	그저 그렇다	840	26.9
	매우 불만스럽다	107	3.4
계		3,125	100.0

* 무응답 제외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3.2%, 여학생이 46.8%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5학년

47.5%, 6학년 52.5%이었다. 거주형태는 아파트 52.9%, 주택 47.1%이었으며, 대부분(86.1%)에서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족 중 대화상대로는 엄마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17.9%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표 1).

2) 일반적인 성 행태 관련 특성

전체의 81.5%가 이전에 성희롱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성희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보통 57.2%, 잘 모른다가 37.8%로 잘 알고 있다는 5.0%에 불과하였다. 대상자의 13.5%가 남에게 성에 대한 고민을 말한 적이 있었으며, 15가지 유형의 성희롱 중 단 한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23.6%에 해당하였다. 전체의 39.4%가 음란물을 본적이 있었으며, 시청한 음란물의 종류는 PC통신·성인사이트(17.6%), TV·유선방송·방송매체(14.0%), 성인영화·비디오·CD(6.6%), 성인만화·출판물(3.4%) 등이었다. 평소 성 문제에 대한 상담 대상은 부모님(4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14.6%), 형제 자매(6.8%)의 순이었으며 상담전화(0.6%)와 학교선생님(0.4%)은 거의 없었고 상담할 곳이 전혀없는 경우도 30.8%나 있었다. 현재 성희롱으로 고민하는 경우 대화상대는 역시 엄마(48.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11.3%)였으며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경우도 12.1%나 있었다. 이전에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 있는 경우는 60.4%였고, 희망하는 성희롱 교육 방식은 가정교육(30.0%), 양호교사(27.4%), 전문상담센터(27.0%)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상담할 곳이 없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52.2% 였다(표 2).

2.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문항별 응답 분포

1)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항별 응답에서 '예'라고 답한 율을 관찰하였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87.4%)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84.8%),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83.7%) 등은 '예'의 응답율이 비교적 높아 대체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로하다며 안마, 주무르기를 요구하는 행위(32.8%), '자신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여 놀리는 행위'(49.0%), '포옹이나 등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59.6%) 등은 '예'의 응답율이 비교적 낮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표 3).

2)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 태도에 대한 문항별 응답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인 율을 관찰하였다.

'주위에서 성희롱 당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일부러 말을 얹고 참고 지낸다'에서 아니다(89.7%), '성희롱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에서 아니다(89.4%), '혼자서 해결이 힘들면 친구·가족과 함께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에서 예(89.2%), '불쾌함은 분명히 강력하게 싫다고 표현한다'에서 예(88.2%) 등은 바른 답을 응답한 율이 비교적 높아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한 사람의 지나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인 충동이 주요 원인이다'에서 예(53.6%), '성희롱은 피해를 주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들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에서 예(45.0%), '성희롱을 막는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에서 예(36.5%) 등은 바른 답을 응답한 율이 낮아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표 4).

3) 유형별 성희롱 경험

15가지 유형별 성희롱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대상자 3125명중 739명(23.6%)이 단 한가지라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유형별로는 '누군가가 PC 통신으로 음란한 편지와 그림·사진을 보내왔다'(11.0%),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예쁘다며(잘 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는다'(5.0%), '그 사람은 자주 피로하다며 나더러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다'(4.7%),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진다'(3.3%) 등이 많았다(표 5).

3.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

전체 대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점 만점으로 평균 7.0±2.8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0.3±28.1점이었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 수준은 13점 만점으로 평균 9.6±2.1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73.5±15.9점이었다. 평균 성희롱 경험 횟수는 0.4±1.1회이었다(표 6).

4.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

1)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 평점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p < 0.001$), 6학년이 5학년보다($p < 0.001$),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 보다($p <$

표 2.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 행태와 관련된 특성

특 성	구 분	No.	%	
성희롱에 대하여 들은 여부	예	2547	81.5	
	아니오	578	18.5	
성희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잘모른다	1180	37.8	
	보통정도이다	1788	57.2	
	잘 알고 있다	157	5.0	
성에 대한 고민을 말한적여부	있다	423	13.5	
	없다	2702	86.5	
성희롱경험유무	있다	739	23.6	
	없다	2386	76.4	
음란물 시청여부	본적이 있다	1231	39.4	
	없다	1894	60.6	
시청한 음란물 종류	PC통신, 성인사이트	551	17.6	
	성인영화, 비디오, CD	205	6.6	
	성인만화, 출판물	107	3.4	
	TV, 유선방송, 방송매체	437	14.0	
	기타	155	5.0	
	본적없다	1670	53.4	
평소 성 상담대상	부모님	1461	46.8	
	친구, 선후배	456	14.6	
	형제, 자매	214	6.8	
	학교선생님	14	0.5	
	상담전화	19	0.6	
	상담할곳이 없다	961	30.7	
	현재성희롱 고민중 대화 상대	엄마	1511	48.4
아빠	259	8.3		
형제, 자매	138	4.4		
친구, 선후배	353	11.3		
학교선생님	55	1.8		
전문상담기관, 상담전화	234	7.5		
혼자서 해결	378	12.0		
기타	119	3.8		
성희롱 교육 받은여부	무응답	78	2.5	
	받은적 있다	1888	60.4	
희망하는 성희롱교육방식	없다	1237	39.6	
	가정교육(부모)	938	30.0	
	전문상담기관	844	27.0	
	학교교육(양호교사)	857	27.4	
	학교교육(담임교사)	225	7.2	
	인터넷, PC통신	79	2.5	
	매체(라디오, 신문, TV)	71	2.3	
	별도 출판물(책자)	31	1.0	
	기타	54	1.7	
	무응답	26	0.9	
	성희롱 후 상담처 유무	있다	1494	47.8
		없다	1631	52.2
계		3,125	100.0	

표 3.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문항의 응답 분포 (n=3,125)

다음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No.(%)	
	예	아니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2730(87.4)	395(12.6)
성관련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650(84.8)	475(15.2)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 오는 행위	2615(83.7)	510(16.3)
직접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2577(82.5)	548(17.5)
음란한(듣기에 불쾌한) 내용의 전화 통화	2513(80.4)	612(19.6)
성적 내용을 묘사하는 야한 농담(음담패설)	2385(76.3)	740(23.7)
입맞춤이나 얼굴, 뺨 등을 맞대어 비비는 행위	2078(66.5)	1047(33.5)
포옹이나 등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1864(59.6)	1261(40.4)
자신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여 놀리는 행위	1532(49.0)	1593(51.0)
피로하다며 안마, 주무르기를 요구하는 행위	1024(32.8)	2101(67.2)

표 4. 성희롱에 대한 태도 문항의 응답 분포 (n=3,125)

성희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No.(%)	
	그렇다	아니다
주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말을 얇고 참고 지낸다.*	321(10.3)	2804(89.7)
성희롱은 사소한 일이다.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332(10.6)	2793(89.4)
혼자서 해결이 힘들면 친구·가족과 함께 막는 것이 좋다.	2787(89.2)	338(10.8)
성희롱의 불쾌함은 분명히, 강력하게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2756(88.2)	369(11.8)
성희롱은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	502(16.1)	2623(83.9)
성희롱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남성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716(22.9)	2409(77.1)
성희롱은 당한 사람의 잘못 부분이 크다.*	909(29.1)	2216(70.9)
단 한번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성희롱으로 문제삼기 어렵다.*	923(29.5)	2202(70.5)
내가 성희롱 당한 것을 주변사람이 알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1001(32.0)	2124(68.0)
가벼운 성적 농담, 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1095(35.0)	2030(65.0)
성희롱을 막는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1145(36.5)	1980(63.5)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1407(45.0)	1718(55.0)
당한 사람의 과한 신체노출에 의한 성적충동이 주원인이다.*	1676(53.6)	1449(46.4)

* : 역산처리문항

0.001), 가정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p<0.05), 엄마가 대화 상대인 경우(p<0.05),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p<0.0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특성별로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표 7).

- 2)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의 평균 평점 수준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p<0.001), 6학년이 5학년보다(p<0.001), 이성친구 없음이 있음보다(p<0.001), 음란물 시청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p<0.001),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p<0.0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특성별로는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표 8).

- 3)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 경험
성희롱의 경험은 6학년이 5학년 보다(p<0.001),

표 5. 유형별 성희롱 경험 문항의 응답 분포 (n=3,125)

다음 중 자신이 직접 당하거나, 듣거나, 본 것이 있습니까?	No.(%)	
	있다	없다
누군가가 PC 통신으로 음란한 편지와 그림·사진을 보내왔다.	343(11.0)	2782(89.0)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예쁘다며(귀엽다며) 꼭 껴안는다.	156(5.0)	2980(95.0)
그 사람은 자주 피로하다며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다.	147(4.7)	2978(95.3)
그 사람은 나와 마주치기만 하면 엉덩이나 가슴을 툭 건드린다.	102(3.3)	3023(96.7)
복잡한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엉덩이·가슴을 슬그머니 만졌다.	94(3.0)	3031(97.0)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예쁘다며 뽀뽀를 하거나 뺨을 맞대어 비빈다.	88(2.8)	3048(97.2)
그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보여주었다.	83(2.7)	3042(97.3)
그 사람은 나에게 자주 성적으로 놀리거나 음담패설을 한다.	81(2.6)	3044(97.4)
그 사람이 이상한 사진·그림이나 비디오·잡지를 보여주었다.	72(2.3)	3053(97.7)
그 사람이 전화로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62(2.0)	3063(98.0)
전철에서 이성 학생들이 음란물을 보며 나를 자꾸 흘깃 보았다.	58(1.9)	3067(98.1)
복잡한 전철 안에서 누군가가 성기를 은근히 밀착시켰다.	46(1.5)	3079(98.5)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섹시’하다고 한다.	32(1.0)	3093(99.0)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	21(0.7)	3104(99.3)
집안 모입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	20(0.6)	3105(99.4)

표 6.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 (n=3,125)

항 목	문항수	Mean± S.D.	(min. ~ max)
인식	100점만점	70.3±28.1	0~100
	10점만점	7.0±2.8	0~ 10
태도	100점만점	73.5±15.9	0~100
	13점만점	9.6±2.1	0~ 13
경험(회)	15	0.4±1.1	0~ 15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p<0.001), 부모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좋은 경우 보다(p<0.05), 형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p<0.05), 음란물을 시청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p<0.001), 왕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p<0.001), 성에 대한 고민을 남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p<0.001),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p<0.05)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성별 성희롱 경험은 여학생(25.0%)이 남학생(22.4%) 보다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 외의 특성별로는 성희롱의 경험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표 9).

5. 교육여부별 성희롱 인식 수준

1) 교육여부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교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문항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율은 교육군에서 35.0%~91.3%, 비교육군에서 29.3%~81.3%로 모든 문항에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 평점 또한 100점 만점에 교육군 74.9±25.2점, 비교육군 63.2±30.7점으로 교육군이 비교육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표 10).

2) 교육여부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교에서 성희롱에 대한 태도 문항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율은 교육군에서 47.0%~90.7%, 비교육군에서 45.2%~86.8%로 역시 교육군에서 전반

표 7.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n=3,125)

특 성	구 분	No.	Mean±S.D.	t or F	p
성별	남	1663	66.7±29.7	7.85	<0.001
	여	1462	74.4±25.5		
학년별	5학년	1483	67.2±30.0	5.84	<0.001
	6학년	1642	73.1±25.9		
사회경제적수준‡	상a	1335	72.1±25.8	11.99	<0.001
	중a	966	71.2±27.2		
	하b	824	66.3±32.0		
인터넷설치여부	있음	2690	70.8±27.5	2.05	0.040
	없음	435	67.5±31.1		
이성친구유무	있음	404	68.5±26.7	1.88	0.171
	없음	2721	70.6±28.3		
부모관계	사이가 좋다	2783	78.7±28.0	1.98	0.187
	사이가 나쁘다	224	67.3±27.7		
	이혼, 한분이 안계심	118	67.8±29.7		
형제 유무	있음	2847	70.6±28.0	1.88	0.059
	없음	278	67.3±28.3		
대화상대	엄마	1854	71.5±27.7	3.23	0.021
	아빠	247	67.8±29.8		
	손위형제, 자매	538	67.8±29.3		
	손아래형제, 자매	486	69.7±27.2		
음란물시청 여부	본적 있음	1231	70.9±29.2	1.50	0.132
	없음	1894	69.4±26.2		
왕따 경험	있음	558	71.4±27.3	1.05	0.291
	없음	2567	70.1±28.2		
성고민 상담여부	말한적있음	423	71.5±26.9	0.97	0.329
	없음	2702	70.1±28.2		
성희롱교육경험	있음	1888	74.9±25.2	11.16	<0.001
	없음	1237	63.2±30.7		

‡ Scheffé 다중검사법으로는 a>b 였음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1) ‘당한 사람의 지나친 신체노출이 주원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문제이다’, ‘주위에서 피해 사실을 알까 봐 참고 지낸다’, ‘피해 사실을 주변사람이 알면 불리하다’ 문항의 응답은 교육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태도 문항에 대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율은 전반적으로 인식 문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성희롱 태도에 대한 수준의 평균 평점 또한 100점 만점에 교육

군 75.3±15.7점, 비교육군 70.9±15.9점으로 교육군이 비교육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표 11).

IV. 고 찰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성개방 풍조, 성의 도구화·상품화, 특히 성관련 대중매체의 범람, 향락산업의 번성 등으로 커다란 변화와

표 8.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n=3,125)

특 성	구 분	No.	Mean±S.D.	t or F	p
성별	남	1663	71.9±16.1	6.33	<0.001
	여	1462	75.5±15.5		
학년별	5학년	1483	72.4±16.1	4.08	<0.001
	6학년	1642	74.7±15.6		
사회경제적수준	상	1335	73.0±16.1	1.17	0.310
	중	966	74.0±15.8		
	하	824	73.9±15.7		
인터넷여설치부	설치되어있음	1690	73.6±16.1	0.28	0.775
	없음	435	73.4±14.9		
이성친구유무	있음	404	71.0±16.5	3.44	<0.001
	없음	2721	74.0±15.8		
부모관계	부모사이가 좋다	2783	70.5±14.4	0.71	0.498
	사이가 나쁘다	224	69.4±15.3		
	이혼, 한 분이 안 계 심	118	71.2±13.2		
형제 유무	있음	2847	73.6±15.9	0.82	0.410
	없음	278	72.8±16.1		
대화상대	엄마	1854	74.0±15.8	0.55	0.644
	아빠	247	72.9±15.9		
	손위형제, 자매	538	73.5±14.9		
	손아래형제, 자매	486	72.1±17.0		
음란물 시청여부	시청한적있음	1231	71.5±15.8	5.85	<0.001
	없음	1894	74.9±15.8		
왕따 경험	있음	558	72.8±16.1	1.25	0.211
	없음	2567	73.7±15.9		
성에 대한 고민	말한적있음	423	74.1±15.5	0.73	0.464
	없음	2702	73.5±16.0		
성희롱교육경험	있음	1888	75.3±15.7	7.53	<0.001
	없음	1237	71.0±15.9		

혼란을 겪고 있다(김명옥, 1984; 김소야자, 1986). 청소년의 성희롱은 성피해의 한 형태로 대부분 바른 성 의식을 형성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1993; 공미혜, 1993). 성희롱은 성 체계의 이중 구조,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가부장적 성 규범, 성간 권력의 불균형, 자본주의에 의한 성 상품화가 함께 작용하여 여성에게는 은폐된 성 가치관

을, 남성에게는 과장된 성 가치관을 제공한데서 기인된다고 한다(김양희, 1995).

성희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직장 여성(조정아와 조혜순, 1991; 공미혜, 1993; 한국여성민우회, 1993; 신성자, 1993; 김미주, 1994; 장필화, 1994; 김양희, 1995; 이성은, 1995; 김영임 등, 2001), 여대생(신혜숙, 1996), 고등학생(정의남과 박신애, 2000)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에서의 청소년 성희롱에

표 9. 대상자의 특성별 성희롱 경험 (n=3,125)

특 성	구 분	No.	성희롱 경험		X ²	p
			있음	없음		
성별	남	1663	373(22.4)	1290(77.6)	2.92	0.087
	여	1462	366(25.0)	1096(75.0)		
학년별	5학년	1483	305(20.6)	1178(79.4)	14.84	<0.001
	6학년	1642	434(26.4)	1208(73.6)		
사회경제적수준	상	1335	302(22.6)	1033(77.4)	5.03	0.081
	중	966	253(26.2)	713(73.8)		
	하	824	184(22.3)	640(77.7)		
인터넷여부	설치되어있음	2690	646(24.0)	2044(76.0)	1.44	0.230
	없음	435	93(21.4)	342(78.6)		
이성친구유무	있음	404	144(35.6)	260(64.4)	36.97	<0.001
	없음	2721	595(21.8)	2126(78.1)		
부모관계	사이가좋다	2783	633(22.8)	2150(77.2)	11.95	0.003
	사이가 나쁘다	224	72(32.1)	152(67.9)		
	이혼,한분이 안 계심	118	34(28.8)	84(71.2)		
형제 유무	있음	2847	660(23.2)	2187(76.8)	3.84	0.050
	없음	278	79(28.4)	199(71.6)		
대화상대	엄마	1854	488(23.6)	1416(76.4)	1.51	0.679
	아빠	247	58(23.5)	189(76.5)		
	손위형제, 자매	590	188(25.3)	402(74.7)		
	손아래형제, 자매	486	107(22.0)	379(78.0)		
음란물시청여부	본적있음	1231	461(37.5)	770(62.5)	214.26	<0.001
	없음	1894	278(14.7)	1616(85.3)		
왕따경험	있음	558	184(33.0)	374(67.0)	32.72	<0.001
	없음	2567	555(21.6)	2012(64.4)		
성고민 상담여부	말한적있음	423	163(38.6)	260(61.4)	60.04	<0.001
	없음	2702	576(21.3)	2126(78.7)		
성희롱교육경험	있음	1888	481(25.5)	1407(75.5)	8.83	0.003
	없음	1237	258(20.9)	979(79.1)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성희롱을 경험한 청소년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Backhouse, 1978; Strauss, 1988; ILO, 1992; AAUA, 1993; Corbett et al., 1993; LeBlanc, 1993; Stein et al., 1993; Charney, 1994; Larkin, 1994; Watkinson, 1995; Yaffe, 1995; Toupey, 1997).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39.4%가 각종 매체를 통한 음란물 시청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옥(1998)의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전체의 86.1%에서 가정 내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등 최근 컴퓨터의 보급 증

표 10. 교육여부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반응 분포와 평균 인식수준

응답 (예)	No.(%)			
	교육군 (n=1888)	비교육군 (n=1237)	X ²	p
포옹이나 등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1221(64.7)	643(51.9)	50.01	<0.001
입맞춤이나 얼굴, 뺨등을 맞대어 비비는 행위	1344(71.1)	734(59.3)	47.10	<0.001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1724(91.3)	1006(81.3)	67.51	<0.001
피로하다며 안마, 주무르기를 요구하는 행위	661(35.0)	363(29.3)	10.88	<0.001
성적 내용을 묘사하는 야한 농담(음담패설)	1535(81.3)	850(68.7)	65.53	<0.001
자신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여 놀리는 행위	1033(54.7)	499(40.3)	61.79	<0.001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1626(86.1)	887(71.7)	98.63	<0.001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1649(87.3)	928(75.0)	78.45	<0.001
컴퓨터 이용 음란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1665(88.1)	950(76.8)	70.99	<0.001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1688(89.4)	962(77.7)	78.53	<0.001
평균 평점 (100점 만점)‡	74.9±25.2	63.2±30.7		<0.001

‡ 은 t-검정의 결과임.

표 11. 교육여부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반응 분포와 평균 태도수준

응답 (예)	No.(%)			
	교육군 (N=1888)	비교육군 (N=1237)	X ²	p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1509(79.9)	900(72.7)	21.74	<0.001
사소한 일이다. 문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1737(92.0)	1056(85.3)	34.64	<0.001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막는 방법이다.	1267(67.1)	713(57.6)	28.86	<0.001
불쾌함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1701(90.1)	1055(85.3)	16.59	<0.001
친구·가족과 함께 막는 것이 좋다.	1713(90.7)	1074(86.8)	11.83	<0.001
단 한번은 성희롱이 아니다.	1367(72.4)	835(67.5)	8.63	0.003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	1614(85.4)	1009(81.5)	8.51	0.004
가벼운 성적 농담, 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다.	1262(66.8)	768(62.0)	7.43	0.006
당한 사람의 잘못 부분이 크다.	1373(72.7)	843(62.0)	7.57	0.006
당한 사람의 지나친 신체노출이 주원인이다.	889(47.0)	560(45.2)	0.99	0.319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문제이다.	1063(56.3)	655(52.9)	3.39	0.065
주위에서 피해 사실을 알까 봐 참고 지낸다.	1697(89.8)	1107(89.4)	0.12	0.724
피해 사실을 주변사람이 알면 불리하다.	1289(68.2)	835(67.5)	0.20	0.651
평균 평점 (100점 만점)‡	75.3±15.7	70.9±15.9		<0.001

‡ 은 t-검정의 결과임.

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는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은 성희롱으로 생각하는 반면, ‘피로하다며 주무르기를 요구하는 행위,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등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김영임 등(2001)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덩이를 만지거나 툭치는 것은 성희롱이다'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며 직접 신체적 접촉에 의한 것을 성희롱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는 '주위에서 알까봐 참고 지낸다', '사소한 일이다', '친구, 가족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다', '불쾌함을 분명히, 강력하게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등의 항목에서는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던 반면, '피해자의 지나친 신체노출이 주요원인이다', '당사자간의 문제이다', '무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등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신혜숙(1996)의 연구에서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기를 꺼린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지나친 노출이 원인을 제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대상이 된 15가지 성희롱 유형에서 단 한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739명으로 전체의 성희롱 경험률은 23.6%이었다. 이는 염영희 등(2001)의 중학생 성희롱 경험률 25.5%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고등학생의 성희롱 경험률 36.5% 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김영임 등(2001)의 직장여성에서의 성희롱 경험률 80%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92%가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고 하며(LeBlanc, 1993),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85%, 남학생의 76%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AAUA, 1993).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AAUA, 1993)에서는 성희롱 경험자 중 여학생의 31%와 남학생의 18%가 빈번하게 경험을 한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의 76%, 남학생의 56%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신체적 접촉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경험자 중 여학생의 65%, 남학생의 42%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성희롱 경험률은 이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경험한 성희롱의 유형은 'PC통신으로 음란한 편지와 사진을 보내는 것', '나만 보면 예쁘다며 꼭 껴안는 것', '손위 어른이 피로하다며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것' 등이 많았으며 이는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포옹이나 뒤에서 껴안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들 문항별 응답을 100점 만점의 평균 평점으로 나타낸 인식과 태도 수준은 각각 70.3±28.1과 73.5±15.9로 대상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고등학생 태도 수준 77.8±33.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다량의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나름대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생각되며, 태도 수준이 높은 것은 개방적인 최근 세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성별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많고 여학생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 큰 것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6학년이 5학년보다 인식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 등에 의하여 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아 PC와 인터넷이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과 고학년의 태도가 높았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학생이고 고학년일수록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왜곡된 성 태도를 부추기는 요소로는 음란물을 들 수 있는데 안동현(199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70%~90%가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음란물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건전한 성 행태와 성희롱의 태도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성별 성희롱 경험률은 여학생(25.0%)이 남학생(22.4%)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정의남과 박신애(2000)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31.7%, 여학생 41.0%로 여학생이 훨씬 많았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으로 남학생도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평가는 보다 대규모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음란물을 경험한 경우에서 성희롱 경험이 많았다. 이는 음란물을 많이 접할수록 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형성하며 성 관련 비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한국형사정책원(1997)의 연구나, 음란물은 성적 충동과 행동을 자극하게 되며, 결국은 성적 감정의 분출, 성적 대리 만족 추구 등을 유도하고 때로는 성범죄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김영혜 등, 2000)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전체의 60.4%가 이전에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는 염영희 등(2001)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62.8%와 거의 비슷한 결과치를 보여준다. 성희롱 교육 경험에 따른 인식 수준은 10개의 전 문항에서, 그리고 평균 평점에서 모두 교육군이 비교육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차이가 큰 인식 문항은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여 놀리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포옹이나 등뒤에서 껴안기', '성적 내용을 묘사하는 야한 농담' 등이었다.

교육 여부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수준은 문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평균 평점은 100점 만점에 교육군 75.3±15.7점, 비교육군 70.9±15.9점으로 역시 교육군이 더 높았다($p < 0.001$). 교육군과 비교육군의 차이가 큰 태도 문항은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 '무시하는 것이 좋다',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사소한 일이다' 등이었다.

이러한 성적은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성 지식 점수가 높았다고 한 이전의 보고(박순선, 1993; 양주연, 1997; 계수연과 문인옥, 1999)와,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김정은(1994)의 연구, 초등학교 이전 시기의 성교육 실시를 강조한 박성정(1996)의 연구 결과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인 관계로 의사전달의 한계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국내 연구 자료가 전혀 없어 결과의 적절한 비교와 평가를 할

수 없었음도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초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연구이며,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조기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 정도를 파악하여 저연령화 되고 있는 성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의 7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생 총 3125명(5학년 1483명, 6학년 1642명)을 대상으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체의 82%가 이전에 성희롱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성희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5%에 불과하였다. 전체의 40% 정도가 음란물을 본적이 있었으며, 경험한 음란물의 종류는 PC통신(18%)과 TV·방송매체(14%)가 많았다. 전체의 60%가 이전에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편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은 대부분 성희롱으로 생각하는 반면, '피로하다며 안마, 주무르기를 요구하는 행위, '자신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여 놀리는 행위' 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 '주위에서 알까 봐 참고 지낸다', '친구, 가족과 함께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희롱의 불쾌함은 분명히, 강력하게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등에서는 대체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던 반면, '당한 사람의 지나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인 충동이 주원인이다',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이다', '성희롱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 등에서는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15가지의 성희롱 유형 중 단 한가지라도 경험한 자는 739명(23.6%)이었고 주로 경험한 유형은 'PC 통신으로 음란한 편지와 사진을 보내왔다'(11%), '나만 보면 예쁘다며 꼭 껴안는다'(5%), '자주 피로하다며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다'(4.7%),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진다'(3.3%) 등이었다. 성희롱 경험은 여학생(25.0%)이 남학생(22.4%)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대상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점 만점으로 평균 7.0±2.8점,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3±28.1점, 성희롱에 대한 태도 수준은 13점 만점으로 평균 9.6±2.1점, 100점 만점으로 평균 73.5±15.9점이었으며, 평균 성희롱 경험 회수는 0.4±1.1회였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 태도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p<0.001), 6학년이 5학년보다(p<0.001), 성희롱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인식과 태도 수준은 교육군에서 비교육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국내 최초 성희롱 연구가 되겠으며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많은 정도는 아니지만 초등학생도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시기부터의 조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교육을 초등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언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과 연지 초등학교 선생님, 교육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공미혜. 직장내 성희롱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1993; 11: 114.
 계수연, 문인옥.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변화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 16(2): 137-155.
 김명옥. 고등학생의 성 지식에 관한 실태조사. 적십자간호. 1984.

김미주. 직장내 성폭력에 관한 일 연구. 울산전문대학논문집 1994; 19(23): 91-109.
 권혜원.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김소야자. 도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간호학 논집, 연세대학교 간호학연구소. 1986.
 김양희.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995; 2(1): 17-32.
 김영입, 김명순, 최숙자, 배종애. 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 12(1): 247-259.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남자중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실태와 접촉반응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0; 6(1): 7-22.
 김정은.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94; 5(2): 232-249.
 김혜옥. 부산경남지역 일부중학교 남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 및 성행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성정.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순선.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의 성교육 전, 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배남숙. 서울시내 실업계 여고생들의 성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신성자.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사회과학연구소 1993; 5: 93-110.
 신영란. 국민학교 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신혜숙.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유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2(2): 147-163.
 안동현. 음란물과 청소년의 성. 대한의사협회지. 1997; 40(10): 1274-1281.28.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1998.
 양순옥, 정금희. 제대로 알면 자녀의 성교육 문제없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1998.
 양순옥. 성교육 우수 자료 활성화 방안. 학교성교육

-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교육부 성교육 자문위원회. 1999.
- 양주연.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1998.
- 염영희, 윤양소, 이규은. 성폭력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과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 12(1): 92-103.
- 임동진.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국민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성은.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원희.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1999.
- 장필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여성학논집 1994; 11: 113-145.
- 정의남, 박신애. 남녀고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0; 11(2): 538-555.
- 조정아, 조혜순. 직장에서의 성적 폭력. 또 하나의 문화. 새로 쓰는 성이야기 1991; (8): 108-139.
- 최명이. 농촌지역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지식 및 성 요구도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 연구회 1996.
- 최영애. 청소년 성폭력 실태 및 대책. 1998.
- 한국교육연구회. 초등학교 성교육. 서울: 한국교육출판사; 1997.
- 한국여성민우회. 여자근로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한국여성민우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1997.
- 허점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조사.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Hostile hallways;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rassment in America's Schools.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1993;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6-186.
- Backhouse C, Cohen L. The secret oppression;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Toronto; Macmillan of Canada. 1978.
- Bryant A, Hallway LH.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3; 63: 355-357.
- Charney DA, Russell RC. An overview of Sexual harass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94; 151: 10-17.
- Corbett C, Gentry CS, Pearson Jr. W. Sexual harassment in high school. Youth & Society 1993; 25(1): 93-103.
-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 Combat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Geneva ;ILO, 1992; 11-12.
- Larkin J. Sexual harassment ; High school girls speak out. Toronto ; Second Sexual Press. 1994.
- LeBlanc AN. Harassment at school; The truth is out. Seventeen(May). 1993; 134-135.
- Stein N, Marshall NL, Ttope LR. Secrets in Public ; Sexual harassment in our Schools.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t Wellesley College and the Now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1993.
- Strauss S. Sexual Harassment in the school ; Legal implications for principals.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Bulletin 1988; 72: 93-97.
- Toupey ML. Learning About the Self ; Adolescent Girls processes of Overcoming Sexual Harassment A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Calgary, Alberta. 1997.
- Watkinson AM. Hostile lessons ;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The Canadian Administrator 1995; 34: 1-12.
- Yaffe E. Expensive, illegal, and wrong ; Sexual harassment in our schools. Phidelta Kappan. (November). 1995; 1-14.